



[동물복지] 뉴질랜드, 향후 2년간 가축 해상수출 중단

-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동물보호단체는 환영하는 한편 농업단체 우려 표명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살아있는 가축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의 가축 해상수출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6천만 달러(NZD, 약 479억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지난해 11만 3천여마리의 소를 해상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이 전복되어 약 6천여마리의 젓소와 선박 승무원 43명 중 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잠정적으로 가축 수출을 중단한데 이어 앞으로 2년간 해상으로 가축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가축들의 안전과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농업단체는 살아있는 가축의 수출이 법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농업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 등 수입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속될 경우 동물복지 논란은 물론 주요 수출국으로서 뉴질랜드의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4월 14일자 >

[지속가능] 멕시코, 치즈 및 와인 폐기물로 클린에너지 생산

- 유청과 포도 찌꺼기 활용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공급처에 연료로 공급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연구진이 치즈와 와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클린에너지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진은 치즈 및 와인 공장에서 배출된 유청과 포도 찌꺼기로 수소와 메탄 가스를 생산해 이를 다시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는 깨끗한 자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폐기물은 실험실로 운반되어 미생물(박테리아와 고세균)을 통해 분해된 후 기체형태의 바이오 가스로 생산된다.

연구진은 유청과 포도 찌꺼기를 공급한 와이너리와 치즈 공장으로 바이오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자급자족에 나서고 있다. < 출처 : thedrinksbusiness.com, 4월 1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